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7호 [무게 제24985호] 주제 104 (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축하연설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전국의 조국해방전쟁 참전자
들과 전사공로자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전승의 날인 7.27을 맞는 동
지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국의 자유독립과 평
화를 위한 성전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인민군렬사들과 중국인민지
원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예순
두돛을 맞으며 오늘 성대히 열린
제4차 전국로병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어 반제혁
명전쟁에서 백승을 아로새겨온
우리 조국의 영광스러운 승리전통
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경축대회
이며 전세대들이 발휘한 영웅적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백두산대국
의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나갈
천만군민의 혁명적기상을 떨치는
의의깊은 대회입니다.
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미일
제국주의강적을 물리치는 두차례
의 혁명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과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전진투쟁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전쟁로병들은 불타는 전초기에서
최고사령부를 그리며 혁명가
를 부르던 그때처럼 로쇠를 모르
는 열정과 기백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며 후대들에게 백옥같은 충
정의 일편단심과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 불굴의 조국수호
정신을 피줄기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전화의 나날 영웅전사들속에서
발휘된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
이 모든 인민군장병들의 신념의
기둥으로, 최고사령관의 명명
지시에 절대복종하는 혁명적군공
이 인민군대의 첫째가는 기강으
로 억척같이 세워져야 하며 한치
의 땅도 목숨바쳐 지키는 열렬한
조국애와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는 필적의 투지가 근
위부대운동이 전개되는 혼란장과
싸움터마다에 용암처럼 끓어번져
야 합니다.
멘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전진
생산을 보장한 그 정신, 폭격속
에서도 식량증산과 전진수송, 전진
원호에 모든것을 다 바친 그 기
백이 나날이 때 경제강국건설의
진구들에서 세인을 놀라우는 기
적과 혁신이 연이어 창조되고 온
나라에 황금벌, 황금해, 황금산의
눈부신 현실이 펼쳐지게 될것
입니다.
우리 당은 자라나는 세 세대
들, 청년들을 조국수호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있습니다.
청년문제이자 혁명의 계승문제이며 혁명위계승
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상적형통, 신념의 피의
계승입니다.
청년들은 선열들이 피로써 창조한 조국수호정신을
뼈에 새겨안고 1950년대의 영웅전사들처럼 조국의
부름앞에 한물 서슴없이 내대야 하며 불타는 애국심과
아름다운 리상, 원대한 포부를 지니고 선군혁명
의 제1선참호와 대건설투쟁들에 용약 달려나가 세상에
자랑높은 청년강국의 주인공, 선군청년전위
의 용맹과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야 합니다.
항일혁명투사들과 함께 전쟁로병들을 귀중한 혁명
선배로 존대하는것은 조선혁명가들의 고유한 품모이며
전통입니다.
로병동지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하여 돌보아
주는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여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지켜온 은인들인 전
생로병들이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라는 영예감을 가지고
로당위원장으로서 자기의 한생을 긍지높이 총화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1950년대 폐정의
수치와 수심년에 걸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총파산의
교훈도 모르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최후의 발악
을 다하고있습니다.
만약 적들이 력사의 법칙적인 전통을 망각하고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무모한 도발을 또다시 걸어온다면 우
리의 혁명적무장력은 침략자들을 최후멸망의 무덤속
에 들어보내줄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미제
와 보병총을 잡고 맞서 싸우던 1950년대 그때와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
에도 다 상대해줄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제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할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미국놈들이 핵을 쥐고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었으며 이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미의 위협과 공포의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미국놈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과 공포로 되고있다
는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주는 정의이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것은 력사
의 필연입니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백두의 혁명정신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필승의 무기로 물려주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전국의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들과 전사공로자
여러분!
존경하는 동지들의 건강장수와 가정의 행복을 축원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인민의
조국을 수호하고 영웅조선의
진승신화를 창조한 항일혁명투사
동지들과 가말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승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
취한 동지들과 전국의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들, 그리고
전사공로자동지들에게 최대의 경의
를 표하며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더불어 조선인민의 자유독립과
동방에서의 평화
를 위하여 우리 인민군대와
한전호에서 어깨걸고 피
흘려 싸우며 우리의 정의의 혁명
전쟁을 도와준 중국
인민지원군 로병동지들에게도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의 7.27은 미제의 강도적인
침략으로부터 조
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낸 제2의 해방의
날이며 세계를 제패하고 노예화
하려고 집어들던 미제
국주의자들을 멸망의 내리막길
에 몰아넣은 긍지높은
승리자의 명절입니다.
창건전지 2년밖에 안되는데
최소한 우리 공화국이 세
계 《최강》을 떠벌이던 미제
에게 수차례 대항투쟁을
안기고 민족의 자주권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
것은 인류전쟁사에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군사적기적
이며 발만딴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거대한 력사적사
변이었습니다.
침략과 약탈로 비대한 미제
를 물리치는 조국해방전쟁은
사실상 멘주력으로 횡포한
날 강도무리와 맞서는것과
같은 어려운 싸움이었으며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이 전쟁
에서 조선인민이 이겼기
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간에 걸치는
가렬한 판가리싸움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인의
예상을 뒤집고 자기의 조
국을 굳건히 지켜냈으며
우리 나라는 새로운 세계
대전을 막아낸 영웅의 나
라, 기적의 나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동지들!
오만무례한 미국놈들을
타승하고 미제의 성조기
에 불을 달고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전승의 축포를
쏘아올리던 승리의 그날
로부터 6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
니다.
세대가 바뀌고 세기를
넘어온 장구한 기간 반
미투쟁의 최전선으로
되여온 이 땅위에 어느
한시도 침략과 전쟁의
불기들이 꺼지지 않는
때는 없었고 세계의
정치정세도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끄떡없이 자
주적근위병의 위용을
떨치고있으며 우리
조국은 반제자주의
보루, 평화의 성새로
높이 솟아있습니다.
지난 세기 50년대
부터 오늘까지 우리
에게서 전세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차례
전통이라 하면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놈
들을 절음마다
통쾌하게
축 쳐대기만 한것은
영웅조선의 자
랑스러운 전통
입니다.
우리 조국의 영광
스러운 승리의 력사
와 전통은 불세출
의 전설적명장들이
신 위대한 수령님
과 위대한 장군님
의 주체적인 군사
사상과 명활무쌍한
전략전술, 탁월한
명군술에 의하여
창조된것이며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
정신과 불굴의 투쟁
에 의하여 마련되었
습니다.
위대한 수령의 명도
밑에 자기 위업의 정
당성과 자기의 힘을
믿고 조국을 수호하
기 위하여 일떠선 군
대와 인민은 그 무
엇으로써도 정복할
수 없다는것, 바로
이것이 력사의 진리
이고 법칙입니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이 있을수 없
습니다.
우리의 전쟁로병들
은 영웅조선의 강대
성과 승리의 력사를
세련한 증견자이며
위대한 수령들의 존
엄과 함께 불리우는
시대를 대표하는 금
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입니다.
우리 당은 전쟁로병
들을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으로 뿐
아니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계
승자들의 대오에 조
국건설수호의 맥동
을 더해주는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로
더없이 존경하며 높
이 내세우고있습니다.
우리의 전쟁로병들
은 청춘도 생애도 다
바쳐 당과 혁명, 조
국과 인민을 결사수
호한 민족의 장한 영
웅들이며 진정한 애
국자입니다.
우리 인민들과 세 세
대의 가슴속에는 진
승세대의 모습이 하
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들도 없는 목
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리수복, 강호영,
안영애와 같은 유
명무명의 영웅들의
군상으로 소중히 새
겨져있습니다.
육천한치의 땅을 지
켜 피를 흘리는 가슴
으로 화점을 막고
항일조적과 땅을 매
달아나간 영웅한 우
리 할아반지, 아버
지세대들이 아니었
다면 존엄높고 강대
한 사회주의조국, 로
동당의 손길아래 복
락을 누리갈 후손만
대의 삶의 보금자리
가 없었을것입니다.
세월은 멀리 흐르고
강산은 변화했지만
불사신의 기상으로
침략자들을 무찌르
고 승리를 안아온 인
민군용사들의 전설
적인 위훈담들과 피
어린 자옥들은 절대
로 잊혀질수도 지워
질수도 없으며 강성
하는 조국과 더불어
더욱 빛나고있습
니다.
1950년대 영웅전사
들은 정신력이 강하
면 원자탄을 휘두르
는 제국주의침략군
대에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실천으
로 보여주었습니다.
수적, 기술적우세를
자랑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과의 대결
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것은 전
설적영웅이신 위대
한 수령님께서 계시
는 최고사령부였으며
세상을 경탄시킨 무
비의 용감성의 원천
은 조국에 대한 열
렬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
억만만 죽더라도
원수를 치는 백두의
혁명정신이었습니다.
《강대성》의 신화
를 자랑하던 미제
가 방대한 전쟁장
비와 추종국가군대
를 총동원하여 발악
적인 공세를 거듭
했지만 자기것에 대
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된 우리 인민
군은 절대로 놀래우
지 않았으며 침략의
무리들은 전쟁기간
심대한 정치군사적,
정신도덕적 참패를
변할수 없었습니다.
전화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조국수호정
신, 이것은 그 어떤
물리적힘에도 비할
수 없는 최강의 힘
이며 우리 세 세대
들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인 로병들
에게서 넘겨받아야
할 가장 귀중한
유산입니다.

제 4 차 전 국 로 병 대 회 성 대 히 진 행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대 회 에 참 석 하 시 여 축 하 연 설 을 하 시 였 다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천만군민이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총공격을 힘있게 다그치며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새 역사를 펼쳐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제4차 전국로병대회가 7월 2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국해방 일흔돌과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돌이 되는 뜻깊은 해의 전승절을 맞으며 로병들의 긍지높은 대회합이 마련된것은 위대한 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여가는 백두산대국의 선군혁명승리에 특기할 의의깊은 사변이다.

전승세대의 고귀한 넋과 애국헌신을 값높이 내세워주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와 온 나라의 커다란 관심속에 열린 이번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영웅적기상과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하는데서 중대한 역사적계기로 된다.

대회에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항일의 로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전시공로자들과 비전향장기수들, 전후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위훈을 떨친 로병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고있는 새 세대 일군들과 인민군군인들, 청년학생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강대성과 존엄, 필승불패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반미대결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진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과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담례를 보내시였다.

황병서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 리을설동지, 황순희동지, 김철만동지, 박경숙동지, 리영숙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오국렬동지, 최영림동지, 태중수동지와 로병들,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개회가 선언되자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서 열정에 넘치신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3 번 으 로 계 속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혁명선배들이 창조하고 빛내여온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최후승리의 7.27을 기어이 안아올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이 4.25문화회관대회장에 차넘치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원수복을 입으시고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영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속에 세계 《희망》을 자랑하던 미제를 쳐부신 크나큰 긍지와 환희에 넘쳐 승리한 고지에서 만세의 환호성을 높이 올리는 인민군용사들의 모습을 형상한 주석단배경에는 《제4차 전국로병대회》라는 글발과 군공 메달모형이 걸려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에 위병들이 서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한 영웅전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따라 만방에 빛내이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제 4 차 전 국 로 병 대 회 성 대 히 진 행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대 회 에 참 석 하 시 여 축 하 연 설 을 하 시 었 다



2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대회장에는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대회참가자들은 선군혁명병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고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도록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무격려해주셨으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이 맥박치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조국수호, 조국번영의 고귀한 사상정신적 제부, 필승불패의 보검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을 크나큰 감격과 격정속에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반제혁명전쟁에서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로병들의 불굴의 정신과 기상, 투쟁본매를 계승하여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위대한 승리와 위훈의 년대로 빛내어나갈 결의로 가슴 불태웠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축하연설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온 로병들에 대한 가장 값높은 평가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는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의 자랑찬 력사에는 당과 수령의 병도를 충직하게

반들어온 로병들의 고귀한 넋과 애국헌신의 피와 땀이 뜨겁게 습배여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혁명의 첫 세대 로병들인 항일혁명투사들과 항일의 전통을 이어받은 인민군용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 따라 조국해방전쟁에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고 빛나는 전승의 력사를 창조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력량상 대비조차 안되는 이 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침략자들을 통폐하게 쳐물리치고 민족의 천만년미레를 지켜낸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병도밑에 전체 군대와 인민이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싸워 이룩한 빛나는 승리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병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전쟁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결머지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원수 격멸의 천민항전으로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없었던 영웅사시를 창조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4 면 으 로 계 속



제 4 차 전 국 로 병 대 회 성 대 히 진 행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대 회 에 참 석 하 시 여 축 하 연 설 을 하 시 었 다



3 면 에 서 계 속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인민군용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원불멸할 시대정신인 조국수호정신을 창조하였으며 정신력의 강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리를 피로써 역사에 아로새기었다고 말하였다.

조국수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근본핵으로 하는 승고한 혁명정신이며 조국을 자기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한치한치의 땅을 목숨바쳐 지켜낸 열렬한 조국애의 정신이며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 백절불굴의 의지로 총만된 견결한 투쟁정신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조국수호정신의 창조자, 구현자이신 로병들이 진후 60여년세월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며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주체조선, 영웅조선의 혁명적기상과 위력을 떨치는데 불멸의 기여를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갈 억척의 신념과 순결한 의리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받들어모시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움으로써 혁명위업계승의 민족사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앞장선것은 로병들의 특출한 공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1990년대의 나날에도 로병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신념과 의리의 한모습으로 받드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한없는 믿음속에서 우리 로병들은 긍지높은 혁명선배로, 나라의 보배로 영광찬란 삶을 누리며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역세게 걸어왔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라는 친필로 조국방위자들의 영웅적위훈과 업적을 조국청사에 더욱 값높이 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오늘 우리 로병들의 불멸의 공적은 세대와 년대를 이어 더욱 빛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로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필승불패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승고한 경의를 드렸으며 선군조선의 자랑찬 승리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렸다.

그는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그 정신, 그 전통을 이어 침략자들을 깨뜨리 싸워버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며 우리 민족과 로병들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축포를 장쾌하게 쏘아올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반미대결전에서 승리만을 떨쳐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조국통일대전에서 승리를 이룩 하자면 전체 군대와 인민을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보고자는 로병들이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지난날 혁명대오의 진렬에서 당과 수령을 신념과 광심으로 충직하게 받들어온것처럼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적인생을 값높이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병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진승업적과 선군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는데서 혁명선배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는 한다.

1950년대의 시대정신을 조국수호, 조국번영의 고귀한 제보로 간직하고 드림 없이 계승해나가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 우리 후대들의 승고한 의무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로병들이 발휘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열렬한 애국주의정신, 대중적영웅주의와 고귀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할것이다.

인민군대에서는 모든 장병들을 조국수호정신의 열렬한 체현자, 사상과 도덕의

강자들로 준비시키며 모든 부대들을 그 어떤 형태의 전쟁과 작전, 전투에서도 백승할수 있는 무적의 전투력을 지닌 최정예의 근위부대로 만들어야 한다.

당이 제시한 병진로선을 끝까지 관철하는 길에 조선혁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 철석의 의지를 안고 국방공업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인민군대의 무장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꾸려나가는 한다.

군대와 인민이 한전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침략자들과 싸워이긴 전민항전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단애에 때려부실수 있도록 군민대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 한다.

1950년대의 투쟁정신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들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진화의 그 정신, 그 투지로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군민협동작전으로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청년들은 백두의 칼바람맛을 알고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열혈투사가 되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최후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감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 없이 바쳐싸우는 김정은시대의 리수복, 강호영, 조군실이 되어 청년강국의 위용을

더 높이 펼치고 우리 조국에 통일강국의 문패를 거머잡아야 할것이다.

조국을 피로써 지켜싸운 로병들을 혁명선배로,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보배로 존중하고 우대하는 사회적미풍을 더 활짝 꽃피워야 한다.

로병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참전자라는 긍지를 안고 한생을 빛나게 총화할수 있도록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성실성의로 돌봐주어야 한다.

보고자는 모두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 해주신 백전백승의 빛나는 전통과 튼튼한 토대가 있고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투에서 이끄시기에 백두산대국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의 7.27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이 차넘쳤다.

대회는 《승리는 대를 이어》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제4차 전국로병대회는 당의 선군혁명령도따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백두의 대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과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파시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